

북한산 관통도로 결국 뚫리나?

청와대·총리실·건교부 등 '강행' 수순밟기 인상

노선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 9월 확정 천성·금정산 구간도 빠른시일내 결론 착공

지울스님 무기한 3천배, 환경연대 "관통땀 특단"

오후 8시 58분. 텔레비전에서는 9시 뉴스에 앞서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화면이 바뀌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등장한다. 스님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나와 가족을 돌보는 보람있는 일터, 불교계로 오세요~."

종단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직무·비전·처우라는 인재 확보 3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용기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의 격월간 참여불교 14호 '불교 인력난 극복, 방법이 없을까?—종단' 기고문에서 지적됐다.

정 실장은 기고문에서 "종단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첫째, 자기조직의 비전에 부합하게, 자신들이(종단) 추구하는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기업경쟁에서조차 불교적 마인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불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개발과 불교계의 발전을 전혀 연계시켜 사고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더욱 좋은 인재가 들어올 리 만무하고, 결과적으로 불교가 쇠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 "종립학교가 불교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조계종 인재 확보 3박자

직무 비전 처우

정용기 불교아카데미 연구실장 지적

"동국대학 불교대학 출신자조차 교계 종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종립학교와 불교계와의 순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요청 맞춤형교육을 예로 들며 △미래사회에서 유망하며 불교계에서도 장차 꼭 필요한 주요분야 선정 △종립학교 확보나 대학원 과정에 그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과정 및 강좌 개설 요청 △배출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게 종단 및 사찰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인재 선발과 관리에 표준이 분명히 서있는 인사관리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즉, 직위 채용 및 관리, 해고에 관한 사항을 종법이나 종령에 입각해 인사처리를 하는 제도적 정비와, 왜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표준안이 왜 중요한지를 문화적으로 설득하고 교육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 외에도 기존 종사자들이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것과, 비전 수립 후 사회단체가 알 수 있는 포지티브 캠페인 진행 등을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백지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의 행보가 '관통'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한산 관통도로) 향후 처리방안' 보고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문조사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을 하고, 두 가지 결과를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해 오는 9월까지 노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불교계와 협상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항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일종의 '공약파기 선언'인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무총리실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산 문제가 7월 말 경제조정관실에서 사회조정관실로 이관된 후 아직 아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으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언

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약 실현 의지가 없거나 모종의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약(空約) 가능성은 정부 주무처와 시공사들의 움직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최종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해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이번 달까지 불교계를 설득해 기존 노선대

로 공사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9월 여론조사와 공개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부고속철 천성산·금정산 구간도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부방침을 확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산관통도로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공사재개가 이뤄

져야 한다며 최근 건교부에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경부고속철 시공사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정종환 이사장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새로운 노선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7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8조원 가량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늦어도 9월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백지화는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당선 후 1600여 스님을 앞세워 재차 확답한 약속사항"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가속화 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경부고속철 경주-부산구간 전 단도 관계 장관회의를 이뤄낸 지울스님(내원사) 스님은 13일부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3천배 정진에 들어갔다. 동참 문의: 011-9306-8033

천미희·남동우 기자

12일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평화를 위한 국민화합 대법회(개혁신당참여 불교연대 창립총회)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보수파, 개혁파의 맞서 싸움으로 뒤숭숭한 신당 창당 논의에서 불교계가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에서는 불교가 정치의 '들러리'를 서며 자존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

그러나 이날 법회를 지켜본 불자들은 사실상 정치적 집회나 마찬가지로 평가했다. 법회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격려사와 축사에 나선 스님과 인사들은 불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골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인들이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냉소주의를 벗고 올바른 정치의 길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자'는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불자들은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를 놓고 사분오열되고 있는 정치권의 분열

부산교계 '개혁신당참여 불교연대' 창립

'불교의 정치 들러리化' 우려

법회서 노골적 '정치 발언' 난무 "불심 분열 조장"

이 적지 않다. 매년 지자체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종교를 이용한 세물이에 나섰고, 불교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이같은 우려는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12일 개혁신당 참여 불교연대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개혁과 평화를 위한 국민화합대법회'는 '개혁신당 참여 불교연대 창립총회'를 겸하면서 정치적인 행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2백여 명의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은 '불교계가 개혁신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 참여정치의 주체로 나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에 참여해야 한다'며 개혁신당 참여 불교인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불교계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부작용을 간과한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에서 민주당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로 다른 불교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개혁 신당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여, 지역 불교계의 양분을 조장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정치 참여는 자유지만 불교의 이름으로 법이나 간담회 형식을 빌려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불교의 정치참여는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교이념의 사회전파 운동이나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종단 환경단체 설립 종무실 폐지대응 방안

한국불교종단협 21일 이사회서 논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21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법종단 환경단체 설립과 문광부 종무실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종단협 소속 종단들은 법종단 환경단체 설립에 이견이 없다. 환경문제가 조계종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종단의 현안이 됐고, 또 일관된 방침을 바탕으로 한 법종단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단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법종단 환경단체 설립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되, 앞으로 계속해 불교환경운동 및 실천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종단 환경단체 설립방식에 대해서는 불교환경연대와 기존 종단이 결합하는 방안과, 종단들이 참여해 불교환경연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종단협이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불교 환경 운동은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 종무실 폐지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종단협 김석오 과장은 "지금쯤 종무실 기능이 확대돼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 종교정책의 오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자정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입장 혜택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30세이상
	4년	■통신80명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통신80명 ■주간30명 ■야간3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 반명함판 사진 5매	
포교사과	2년	■야간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1991.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제 1회 졸업생배출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2.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분교 34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분교 50명 합격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남경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사범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에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강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원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6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교육부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징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 0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 화 불 교 대